<Reframed>

Reframed는 밀란 쿤데라의 책 ‘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’을 분해하여 재구성한 책입니다.

이 책은 읽히기만 하는 물건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. 재구성이라는 방식을 통해 확장된 Reframed는 시선을 고정하기, 앞뒤로 뒤집기, 넘길 페이지 선택하기, 방향 바꾸기와 같은 다양한 행동들을 요구합니다. 책을 읽는 중 길을 잃을 수도 있으며,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.

Reframed는 토마시와 테레자, 사비나와 프란츠, 카레닌의 등장인물별 내용을 각각 페이지, 텍스트 방향, 펼쳐지는 공간으로 담아낸 세 권의 책과, 가벼움과 무거움을 담아낸 두 권의 책, 그리고 사비나의 이중노출의 형식을 가진 카드로 구성됩니다.